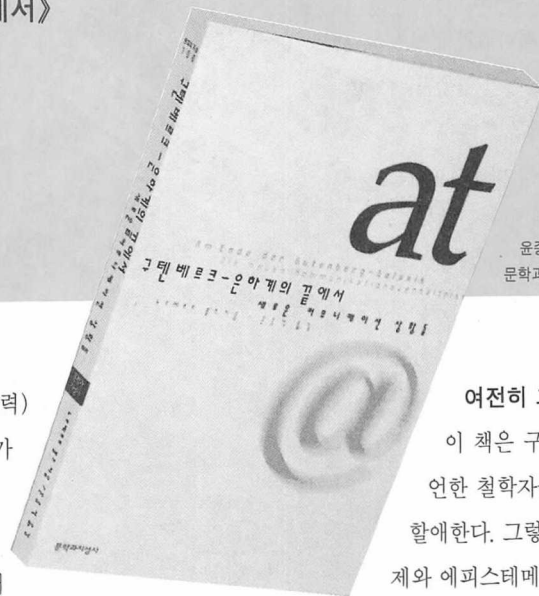


'구텐베르크 시대의 종언' 선언한 뉴미디어 예찬론

노르베르트 볼츠의 《구텐베르크—은하계의 끝에서》

김광현 | 대구대 서양어문학부 교수



윤중석 옮김
문학과지성사/A5신/316면/11,000원

노르베르트 볼츠의 《구텐베르크—은하계의 끝에서》는 문자의 전성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구텐베르크 소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비판하고 미래를 예측했다는 철학 및 미학사조를 소개하는 동시에 하이퍼미디어의 시대를 조망하고자 한다. 저자에 따르면, 문자의 절대주의는 이성 중심주의적 모더니즘을 뿌리내리게 했으며 이는 다시 미디어를 필수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문자의 포화화는 상호 개인적인 직접 대화를 차단시켰으며 그 결과 (문자)정보는 그 자체를 위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즉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면서 신문(여론)은 신을 대신하게 됐고 바야흐로 미디어는 곧 권력으로 인식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이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상 매스미디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흔들리는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요컨대 미디어가 권력이라면(그리고 이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미디어의 수신자는 대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설명했다면, 이 책의 내용들은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는, 미디어를 메시지가 아닌 마사지로 받아들인 대중의 구성적 특징과, 미디어가 자체적으로 번식할 필요성을 비롯해 대중이 대중으로 남고자 하는 욕구(또는 대중으로 남게

하려는 권력)의 관계가 뉴미디어의 출현과 더불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전망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저자에 따르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는 (저자가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도상기호'의 점령을 받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의 도상기호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의 경제논리에 따라 생산된 이른바 텔레비전의 정보 더미들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상기호들이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문자-텔레비전의 커뮤니케이션은 소수가 다수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에 근거하는 반면, 하이퍼미디어는 (개인으로서의) 다수가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모든 정보는 대중의 지적 평균치에 맞춰 생산되며 당연히 그런 정보생산 시스템은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시키는 소비문화를 옹호한다. 그러나 후자는 오로지 기호(嗜好) 중심의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인맥도 지연도 필요 없다. 이는 또 다른 정치 문화적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미디어가 아닐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지 오웰이 그려낸 '빅 브라더'도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됐다.

여전히 그 위의 잃지 않을 문자매체

이 책은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종말을 예언한 철학자들을 나열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렇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기존체제와 에피스테메를 거부하려 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고대에는 그노시즘주의자들이 있었고 양자 역학의 시대에는 사드와 니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저자가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라는 은유적 표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논증을 펼쳤다면 독자들은 나름대로의 독서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독서의 방향은 철학·미학·언어학·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뒤섞이는 카테일을 마셔야만 겨우 잡히는데, 이쯤 되면 독서욕은 시들 수도 있다. 게다가 원문에 너무 "충실한" 번역 스타일과 간혹 발견되는 오역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쨌든 소설은 연극을 죽이지 않았고 영화도 소설을 죽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영화를 죽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 모든 것은 공존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혁명적 출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문자를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상기호와 문자는 상호 보충적인 기호작용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이라는 토대는 아직 경제성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도상기호보다는 오히려 문자가 (예술의 본질 중 하나인) 열린 해석을 허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